

#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전환...진단·치료비 무료 중단

### 독감처럼 관리...확진자 집계 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종료 연1회 백신 접종비용은 무료 지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춰진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

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지역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체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22일 광주에서는 9370명, 전남에서는 9852명이 확진됐다. 일평균 확진자는 광주 1339명, 전남 1407명으로 각각 1489명, 1577명을 기록한 지난주보다 줄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지역미 질병관리청장과 전문가들이 23일 총복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고흥 우주항공 중심지 속도낸다

###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예타 면제 고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설

우주산업의 핵심기지인 고흥의 발사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 구축사업(안)'을 위한 고흥 민간 발사체·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관련 기

술 활성화에 대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게 됐다.

당장, 전남의 경우 내년부터 '아시아의 우주항도약'을 목표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 발사장을 조성하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민간 발사장은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2023억원을 들여 우주센터 발사장 인근에 건설된다. 민간 발사장 구축이 이뤄지면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열리게 된다. 또 발사장 인근에는 이송된 발사체 단 조립 및 위성 조립 등을 위한 조립동을 건립해 민간기업의 발사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에서 거점센터 역할을 할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도 오는 2027년까지 385억원을 들여 새롭게 조성된다.

발사체사업화센터는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시험 평가·인증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이와 별도로 발사체 연소시험시설도 과학기술부와 연계, 오는 2025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고흥 봉래면 외나로도 일대에 38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173만㎡ 규모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 우주·항공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등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예매

### 31일까지 30% 할인...전남 관광지·숙박·음식점 등 연계 할인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9월 1일 개막하는 비엔날레 입장권 사전예매를 8월 31일에 마감한다. 예매하면 현장 구매가보다 30% 저렴하고, 전남 관광지와 숙박·음식점 등 연계 할인혜택도 있다.

사전예매 입장권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 누리집, 티켓링크, 네이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전시장인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과 4관 남도전통미술관에 설치된 현장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장매표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전남도립미술관, 산청세계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입장권을 제시하면 수목비엔날레 입장권을 연계 할인 금액으로 구

매할 수 있다.

또 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행사 기간 전남 관광지 60개소, 숙박시설 5개소, 음식점 27개소에서 연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가 타 시도인 성인은 목포와 진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권이 지급된다.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올 가을 남도의 진한 목향을 선사할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9월 1일 개막한다"며 "8월 말까지 입장권 사전예매가 가능하니 할인도 받고 수준 높은 전시, 전 연령대가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 등 볼거리가 풍성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식 기자 chadol@

##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물품 공개 구입

### 서류·실물 감정후 매매여부 결정 탄생 100주년 특별 기획전 출품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물품을 공개 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매 대상은 김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나 만남을 담은 기록물, 광주와 관련된 자료

등이다. 매도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jhf/)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다음 달 18~22일 박물관 이메일(bulmi01@korea.kr)로 하면 된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자료는 두 달여 간 서류 심사와 실물 감정을 거쳐 매매 여부가 결정된다. 박물관은 구입한 유물을 내년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특별 기획전에서 출품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김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들려줄 박물관 특별기획전과 전시 도록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부모소득 높은 자녀, 첫 일자리 소득도 높아 '최고 1.2배'

부모 소득에 따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근로소득과 일자리 질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정우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양극화는 존재하는가?'라는 KEDI 브리핑을 보면 2010~2019년 10년간 4년제 대졸자의 노동 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모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4년제 대졸자 집단은 부모 소득 하위 20% 집단보다 첫 일자리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최고 1.21배

(2012년) 높았다.

현재 일자리에서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최고 1.23배(2010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 소득 상·하위 20% 집단 간 월평균 소득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정규직 여부, 4대 보험 가입 등 경제적 단면에서 일자리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질은 2010년 기준 첫 일자리에서 상위 20% 집단이 1.18배, 현재 일자리에서 1.2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 임대시설 개요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적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